



2018-07-19

경기도 '평화 경제 3대(帶)·3로(路) 전략' 제시



2018-07-19 20:58

경기도, 남북평화협력 비전 '평화경제 3대3로 전략' 제시

Loading the player ...

경기도가 남북 평화협력시대의 중심에 서기 위해 "경기도 평화경제 3대3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3대3로"는 경의축과 경원축, DMZ동서축 등 3개 지대와 이를 축으로 하는 경의선, 경원선, 환황해 해양로드를 개발해 경기도를 한반도 신경제지대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강병호 기자 Copyright © OBS 뉴스

경기도 '평화경제 3대3로 전략' 제시

입력 2018.07.19 (21:34) 수정 2018.07.19 (21:39) 뉴스9(경인)



[앵커]

경기도가 평화경제 시대 전략으로 '3대3로'를 제시했습니다.

여건이 갖춰질 경우 경의과 경원, DMZ축 3지대와 경의선, 경원선, 환황해 해양로드 3로를 중심으로 경제 전략을 편다는 계획입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북 경협과 관련해 전략을 준비해 온 새로운 경기위원회가 '3대3로'란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고양에서 파주를 잇는 지대와 의정부에서 동두천, 연천을 잇는 지대, DMZ 등 3지대로, 동북아 차원으로는 경의선과 경원선, 환황해 해양로드를 경제 전략 중심으로 삼는다는 내용입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통일경제특구는 주요 축에 성격을 달리해 설치한다는 구상입니다.

[이한주/새로운경기위원회 공동위원장 : "경의축에는 주로 산업과 관련된 특구를 만들고 경원축에는 관광과 물류, 에너지 특구를 만들고..."]

DMZ는 생태평화축제와 평화포럼을 만들어 관광 벨트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환황해 벨트는 평택을 중심으로 북한 해주와 신의주, 중국 연태 등을 연계해 동북아 경제협력 지대를 구축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다만 가을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전에 초기 조치가 이뤄져야, 지자체의 대북 협력 논의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 : "10월 이내에 우리가 희망하기로 또 나름대로 본다면 1단계 북한에 대한 민생 제재는 해제되는 이런 정도만 유엔에서 풀어주면 어떨까?"]

정부와의 역할 분담과 사업계획 구체화는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홍현익/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 "큰 욕심을 내서 이벤트성의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지속성이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 참여나 기금 마련을 통해서..."]

경기도는 평화정책자문협의회 등을 구성해 평화경제 관련 전략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경기도, '3帶3路' 전략 남북평화협력시대 중심으로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서 "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 토론회" 개최

남북교류.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 중심 "경기도" 위한 심도 있는 발표.토론



[앵커] 경기도가 남북평화협력시대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구상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 경제구상"에 맞춰 "경기도 평화경제 3대3로(3帶3路)"를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박상욱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한주 새로운경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남북평화협력시대의 중심, 경기도"라는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전략으로 "경기도 평화경제 3帶3路"를 제시했습니다.

이한주 새로운경기위원회 공동위원장입니다.

(녹취)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신 북방 계획을 염두했고, 북한과 남한,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 개선을 염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의축 지대와 경원축, DMZ 동서축 지대의 3帶, 경의선 로드, 경원선, 환황해 해양로드의 3路입니다.

경의축을 한반도 통일 경제의 거점으로, 경원축을 한반도 관광·물류·농업 거점, DMZ 동서축을 한반도 평화생명벨트로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3路를 통해서 중국과 연결되는 경의선, 러시아로 이어지는 경원선을 중심으로 우리의 경제영토를 유라시아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경기 서해안을 중심으로 남·북·중을 연결하는 환황해 해양로드를 열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동북아 성장 시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이한주 새로운경기위원회 공동위원장입니다.

(녹취) "GTX도 고속도로도 가다가 중간쯤 어디서 끊어지고... 한반도 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해 앞으로 경기도가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도 설정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체계 정비와 확대, 경의·경원축 통일경제특구 추진, 미군공여지 국가 주도개발, DMZ생태평화지대 구축, 환황해 경제벨트 개발 등입니다.

이밖에도 ▲남북교류협력과 지자체의 역할 ▲경기도 통일특구 추진과제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과 경원선축 발전방향 ▲DMZ 평화지대화 의의와 과제 ▲군부대주변지역 지원방안 ▲DMZ 접경지역의 평화미래 연대기 ▲환황해경제벨트개발 등 다양한 정책제안이 이뤄졌습니다.

오늘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 토론회"에는 이화영 경기도 연정(평화) 부지사과 이한주 새로운경기위원회 공동위원장, 정성호 새로운 경기위원회 부위원장 등 각계각층의 평화분야 전문가, 정책대표, 공직자, 도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박상욱입니다.

'경기도 평화경제 3대3로 전략' ...이한주 "남북평화협력의 중심 비전"



"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토론회" 모습. <사진= 경기도>

[경인방송=구대서 기자]

경기도를 남북평화협력의 중심으로 조성하기 위한 비전으로 '경기도 평화경제 3대3로 전략'이 제시됐습니다.

이한주 새로운경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오늘(1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 같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평화경제 3대3로 전략'은 경의축 지대, 경원축 지대, DMZ 동서축지대 등 3개 지대(帶)를 축으로 경의선 로드, 경원선 로드, 환황해 해양로드 등 3로(路)를 개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를 △한반도의 경제지도 중심지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신성장거점 △통일한반도 사통팔달의 인프라 △살고싶은 생태복지 경기북부 등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3대3로 전략' 실현을 위한 중점 과제로는 5대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5대 방안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체계 정비와 확대 △경의·경원축 통일경제특구 추진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과 경기도의 선도적 역할 △DMZ 생태평화지대 구축 △환황해경제벨트 개발 등입니다.

이한주 공동위원장은 "경기도 평화경제 3대3로 전략의 성패는 한반도 정세와 한미관계 등 외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지만 경기도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간다면 외적 요인의 변화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협력시대' 경기도의 비전은?... '3대3로' 전략 제시



남북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토론회 <사진=경기도 제공>

[경인방송=배수아 기자]

(앵커)

경기도를 남북평화협력의 중심으로 조성하기 위한 비전으로 '경기도 평화경제 3대3로 전략'이 제시됐습니다.

이한주 새로운경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배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평화경제 3대3로 전략'은 3개 지대를 축으로 3개의 로드를 개발하겠다는 뜻입니다.

3개 지대는 경의축 지대와 경원축 지대, DMZ 동서축지대이고, 3개 로드는 경의선 로드, 경원선 로드, 환황해 해양로드입니다.

도는 3개 로드 개발을 통해 4가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심지, 한반도 경제 공동체의 신성장 거점, 통일 한반도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 살고 싶은 생태복지의 경기 복부가 목표입니다.

먼저 경의축 개발 사업에는 경의축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한강하구 남북공동 활용 등이 담겼습니다.

경원축 전략사업으로는 경원축 통일경제특구 조성,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 대북 농업교류 전초기지 조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DMZ 동서축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으로 DMZ-임진강 평화생명벨트 조성, 임진강 수계 공동 관리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경의 중앙선 연장 사업과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조기 준공, 남북 경의선 연결, 남북 고속도로망 확충, 인천 강화-강원 간성 간 고속도로 사업 추진 등은 3로 전략을 향한 핵심 사업입니다.

'3대3로 전략' 실현을 위한 중점 과제로는 5대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체계 정비와 확대, 경의·경원축 통일경제특구 추진, 미군 공여지 국가주도 개발과 경기도의 선도적 역할, DMZ 생태평화지대 구축, 환황해경제벨트 개발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한주 공동위원장은 "재원마련과 체계 구축, 마스터 플랜 수립, 관련법 제정 노력 등은 '3대3로' 전략 실현을 위한 중점 실천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인방송 배수아입니다.

sualuv@ifm.kr

“남북 신경제 중심지 경기도, ‘3대·3로’로 평화 이끌자”

‘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토론회

경제특구·교통망 등 전략사업 제시
신성장 거점·생태 복지 등 목표 구상
“北 우수 인력·풍부한 지하자원 활용”



19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평화시대의 경기도’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남북 평화 시대를 맞아 경기도의 역할과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왼쪽부터 소성규 대전대 교수, 홍현의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한주 새로운경기위원회 공동위원장. 경기도 제공

문재인 정부의 남북 정책을 토대로 한 경기도 차원의 정책 방향이 공개됐다.

경기지사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 이한주(가천대 교수) 공동위원장은 19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기조발제 ‘평화협력 시대-경기도가 할 일’에서 경기도의 평화경제 3대(帶)·3로(路) 전략을 제시했다.

3대는 경의축·경원축·DMZ 동서축 지대를 말하며, 3로는 경의선·경원선·환형해 해양로드를 말한다. 이 공동위원장은 3대·3로 전략으로 경기도를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심지, 한반도 경제 공동체의 신성장 거점, 한반도 사통팔달의 교통인프라, 살고 싶은 생태 복지의 경기 북부 등 4가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경의선축에는 통일경제특구 조성 과 남북 경의선 연결, 한강하구 남북 공동 활용 및 명소 조성, 경의중앙선 도리산역 연장, 2020년 개통 예정인 서울~문산고속도로 조기 준공, 개성수화여행과 개성·과주 마라톤 대회 추진 등의 67지 전략사업을 소개했다. 경원축에는 통일경제특구 조성 과 남북 경원선 연결, GTX-C연결과 순환철도망 구축, 남북 연결 도로 및 고속도로망 확충, 친환경 디자인 융합클러

스터 구축, 공연·예술 및 휴양 산업 육성, 대북 농업 교류 전초기지 조성 등의 7가지 전략사업을 제시했다. 이 밖에 DMZ 동서축에는 DMZ 생태평화 관광벨트와 올레길 조성, 세계생태 평화축제와 DMZ 세계평화포럼 개최, 임진강 수계 공동 관리, 강화~간성 고속도로 사업 추진 지원 등의 전략사업을 소개했다.

앞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평화번영시대의 전망’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북에 대한 인식이

“김정은 위원장이 추구하는 새로운 국가상의 인정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2020년 말 이전 비핵화·북미 수교·경제 제재 해제·평화협정 체결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북 미사일(핵)에만 주목해 알지 못했을 뿐 북한은 이미 7년 전부터 경제 개방을 공식화하면서 외국인 투자에 바탕을 둔 고도경제 성장 방안을 구상해 왔다. 북한에는 우수한 노동력과 인력, 풍부한 지하자원, 빼어난 관광자원 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은 중국이 천안문 사태를 잘 넘기면서 고도성장을 이룬 사실 등을 벤치마킹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기도가 주최하고 새로운경기위원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세종연구소 등이 공동 주관한 정책토론회에는 홍현의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이재현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 한모니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박철수 한라대 동북아경제연구원장 등이 참석해 남북 평화협력 시대 경기도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경인일보



‘행 뚫린’ 통일로 가는길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남북평화시대에 맞춰 ‘3대3로(3帶3路)’ 북부 발전 전략을 19일 발표했다. 경의선, 경원선, DMZ 일대를 개발해 평화시대의 첨병이 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파주시 자유로에 설치된 ‘통일로 가는 경기도’ 간판 모습.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경기북부 평화경제 사업 '3帶3路' 추진

통일특구·미군 공여지 개발 중심 인수위 남북교류·법안 마련 제안

이재명 지방정부가 남북평화시대에 경기 북부를 평화경제협력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통일경제특구·미군공여지 개발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평화경제 3대3로(3帶3路)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19일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 위원회'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의축 지대, 경원축 지대, DMZ 동서축지대 등 3개 지대(帶)를 축으로 경의선 로드, 경원선 로드, 환황해 해양로드 등 3로(路) 개발을 통해 경기도에 평화경제 지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의축 개발 사업으로는 통일경제특구 조성, 남북 경의선 연결, 한강하구 남북공동활용, 고양-파주 출판 및 문화 클러스터 구축, GTX-A 연결을 통한 경의중앙선 연장, 서울~문산 고속도로 조기 준공, 개성수학여행 및 개성~파주 마라톤대회 등 평화사업이 내용으로 제시됐다.

경원축 전략은 역시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며, 남북 연결 도로 및 고속도로망 확충,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조성, 친환경 디자인 클러스터 구축, 대북 농업교류 전초기지 조성 등이 포함됐다.

DMZ 동서 축은 임진강과 연결해 생태관광벨트를 조성하고, DMZ에서 세계생태 평화축제·평화포럼을 개최하는 내용이다. 인수위는 이 같은 발전 전략을 실현하

기 위해서는 문화 스포츠 교류를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 체계를 정비·확대하고, 경의·경원축 모두 경제특구를 추진하며 미군공여지를 국가주도로 개발해야 하는 입장이다.

특히 통일경제특구에 대해선 올해 안에 법적 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통일부와 특구 지정을 협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한주 인수위 공동위원장은 "3대3로 전략의 성패는 한반도 정세와 한미관계 등 외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만, 경기도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간다면 외적 요인의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경인일보

2018년 7월 20일 금요일 019면 오피니언

'경기도 평화경제 3帶3路', 통일경제특구로 열자

경기도가 19일 남북평화협력시대의 새로운 경제비전으로 2개의 통일경제특구를 포함한 '경기도 평화경제 3대3로' 전략을 제시했다.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도 위원회'가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밝힌 전략의 핵심 골자는 현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맞춰 경의축, 경원축, DMZ 동서축 지대 3대와 경의선 로드, 경원선 로드, 환황해 해양로드 3로를 중심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대의 중심지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신성장 거점 ▲통일한반도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 ▲살고 싶은 생태 복지의 경기 북부 등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환동해, 환황해, 접경지역 등 3대 경제벨트를 통해 한반도 경제지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접경지역에 위치한 경기도가 이를 수용해 지방정부 차원의 경제전략을 신속하게 마련해 지역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3대3로' 전략은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자 한계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희망

대로 북한 비핵화를 통한 남북평화체제가 진전될 경우,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구체화되면 도의 3대3로 전략도 날개를 펼 것이다. 반면에 남북 및 북미간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외교적 장애가 발생한다면 큰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 3대3로 전략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변화와 변수를 감안해 단계적이고 정밀한 실행방안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3대3로 전략의 실행방안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3대의 경의축과 경원축에 통일경제특구 추진을 포함시킨 것이다. 통일경제특구는 경기북부의 자치단체와 여야 정치권에서 지역경제 부흥의 대안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가 최근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에게 정부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던 현안이기도 하다. 통일경제특구를 설립해 경기북부에서 운영중이거나 신설될 테크노밸리와 연계시킨다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도 있다.

특구 조성을 위한 환경은 최적이다. 이미 관련법이 해당 상임위에 계류중이고, 여야 의원들도 특구조성에 호의적이라고 한다. '경기도 평화경제 3대3로 전략' 실천의 첫 과제로 통일경제특구법을 통과시키는데 경기도와 도내 정치권이 힘을 모으기 바란다.

道, 한반도 경제·교통·생태 중심지 만든다

새로운경기위, 남북협력시대 역할 정책토론회... '평화경제 3대·3로' 전략 제시

북미 간 북한 비핵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경기도평화경제 3대(帶)·3로(路) 전략 등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위원회 이한주 공동위원장은 19일 오전 10시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평화협력시대-경기도가 할 일' 발제를 통해 '경기도 평화경제 3대(帶)·3로(路)' 전략을 발표했다.

3대는 경의축·경원축·DMZ 동서축 지대, 3로는 경의선·경원선·환황해 해양로드로 '3대·3로' 전략을 통해 경기도를 한반도 신경제지대의 중심지,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신성장 거점, 통일 한반도 사통팔달의 교통인프라, 살고 싶은 생태복지의 경기북부 등 4가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의축은 통일경제특구 조성, 남북 경의선 연결, 한강하구 남북 공동 활용과 명소 조성, 개성수학여행과 개성-파주 마라톤대회 등 남북교류협력사업, 고양·파주 출판 및 문화콘텐츠 클러스터 구축 등 전략사업을 추진한다.

경원축에는 통일경제특구 구성과 남북 경원선 연결, 순환철도망 구축과 물류기지 조성, 남북 연결 도로 및 고속도로망 확충, 공연·예술 및 휴양산업 육성, 대북 농업교류 전초기지 조성 등의 전략사업을 제시했다.

DMZ 동서축은 DMZ 생태평화 관광벨트와 올레길 조성, 세계생태평화축제와 DMZ 세계평화포럼 개최, 임진강 수계 공동관리, 인천 강화~강원 간성 간 고속도로 사업추진 지원 등의 전략사업을 내놨다.

전략사업을 위한 중점과제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체계 정비와 확대, 경의·경원축



1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기조 발제를 하고 있다. 전형민기자

통일경제특구 추진, 미군 공여지 국가주도 개발과 경기도의 선도적 역할, DMZ 생태평화지대 구축, 환황해경제벨트 개발 등을 꼽았다.

미군 공여지 개발과 관련해 도가 정부에 '미군 공여구역 개발청' 설립 등 전담조직 설치를 건의하고 도 차원의 지방비분담과 재원 확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경기 서해안~개성공단~해주·남포·평양~신의주~중국 단둥~동북 3성을 연결하는 환황해경제벨트 조성을 위해 도가 신의주 북중합작공단, 산동반도 연태 한중산업단지 사업 적극 참여와 평택-북한 해주, 남포-중국 산둥성 연계 항로 개설, 평택항의 중심거점 육성 등을 추진하는 역할도 제시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새로운경기위원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세종연구소, 대진대 DMZ연구소,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가 공동 주관한 토론회에는 각계각층

의 평화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남북평화협력시대 경기도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평화번영시대의 전망'이란 기조발제를 통해 남북관계를 전망했다. 이 전 장관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논의와 남북경협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트럼프 미 대통령 임기 내인 2020년 말 이전에 북미수교, 경제제재 해제, 평화협정 체결 등 중요 비핵화 달성 가능성을 언급했다. 경제제재 완화와 관련해 '과정으로서 비핵화'에 상응한 단계적 해제 가능성을 전망했다. 이선호기자

통일경제특구법 연내 제정 추진... 남·북·중 경제 협력지대도 구축

道 '평화경제 3대3로 전략' 발표

“북한 비핵화 논의의 궤도 이탈 가능성은 낮다. 2020년 하반기 주요 핵 시설이 완전 폐기 되면 전면적 남북경제협력이 이뤄질 것이다.” 1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평화 시대의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내놓은 한반도 평화번영시대의 전망이다. 이 전 장관은 한반도 평화형성 체질이 이뤄질 경우 남한의 5천만 명, 북한 2천500만 명, 중국 동북 3성 1억1천만 명을 비롯해 극동 러시아와 몽골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북방경제권이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 역시 민선 7기 북방정책으로 3대(帶3로路)를 깨내며 남북경제협력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차지하기 위한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道 '3대3로 전략' 5개 중점과제

- 1. 남북교류협력 사업체계 정비 및 확대
스포츠 문화예술 교류, 개성수학여행, 현역보존사업, 농촌현대화사업, 유소년 축구대회 등 재개 추진
- 2. 경의·경원축 통일경제특구 추진
국회와 공조 연내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노력
- 3. 미군공여지 국가 주도개발·경기도 선도적 역할
미군공여구역 개발청 건의, 특별법 개정 국비지원 확대
- 4. DMZ 생태평화지대 구축
지역별 특성 연계 글로벌 평화생태 관광벨트 조성
- 5. 한일해경계벨트 개발
서해안~개성공단~평양~신의주~중 동북 3성 남·북·중 바닷길 연결 동방성장 벨트 구축

중단된 남북협력사업 재정비
DMZ 평화생태 관광벨트 조성
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도 박차
전문가 “道, 지방세 감면 등 필요”



평화시대 道 정책토론회 9일 오전 의정부시 경기북부청사에서 열린 평화시대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이한주 새로운경기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기조 발제하고 있다.

백등민기자

◇3帶3路, 5대 중점과제 = 경기도의 신 북방정책 '3대3로'는 다섯개의 중점과제가 핵심이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체계 정비 및 확대, 경의·경원축 통일경제특구 추진, 미군공여지 국가 주도개발과 경기도의 선도적 역할, DMZ 생태평화지대 구축, 한일해경계벨트 개발이 그것이다. 먼저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기추진되나 중단된 사업을 재정비하고 신규사업의 확대 추진이 이뤄질 전망이다. 73년간 분단으로 인해 멀어진 정서적 동질감

복원을 위한 스포츠 문화예술 교류 부문에서는 기존 유소년축구대회 재개가 거론되며, 새로운 사업으로는 개성 수학여행, 개성~파주 마라톤 대회 등이 꼽힌다. 또 개성현역보존사업을 통해 관광자원의 활성화도 꾀한다.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 현대화 사업과 개풍양표장 조성 사업들도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재개가 추진된다. 인수위는 현재 북한의 수요를 고려해

인도적 지원사업에 팔찌도 포함적이고 종합적인 개발협력이 추진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도는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위원회 확대 개편 및 도와 시·군간 남북교류협력협의체 구성 및 공조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지방정부 주도적 교류협력사업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건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경의·경원축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통일경제특구조성계획은 국회와 공조를

통해 연내 관련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막대한 자원 소모로 국가주도 개발이 절실한 반환 미군 공여지는 특별지방행정기관 형태의 '미군 공여구역 개발청' 설립을 정부에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주한미군공여구역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비지원을 확대하는 등 두·트랙 전략도 진행될 전망이다. 천혜의 생태보고로 일컬어지는 DMZ 지역에는 생태평화지구 구축이 추진된다. 경기 서해안은 해양대저, 접경지역은 평화생태, 경기 동부권은 산악·수변대저 등 지역별 특성을 연계한 글로벌 평화생태 관광벨트로 조성한다는 것이 생태평화지구 조성계획의 골자다. 육로뿐만 아니라 해로를 활용한 남·북·

중 경제협력 지대 구축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일해 경계벨트 조성계획이다. 경기 서해안~개성공단~해주~남포~평양~신의주~중국 단둥~동북 3성을 배닷길로 연결하는 동방성장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 남북협력에 주도적 역할 해야” =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다가오는 통일 한반도 시대 남북교류협력 분야에서 경기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근식 중앙대 교수는 “남북 화해무드로 인한 평화특구는 현실로 체감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장기간 계획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통일특구에 대한 큰 그림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리겠지만, 경기도 차원에서의 구

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나뉘도록 추진 전략을 단계별로 계획해 수행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소성규 대진대 공공인재대학장(인수위 평화경제특위 부위원장)은 그간 진행된 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계획 과정에서 드러난 경기도의 의지 부족을 꼬집었다. 소학장은 “경기도는 반환공여구역 등 발전종합계획 수립권자이면서도 국비에 상응한 도비 지원 없이 전역 시·군이 부담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했다”면서 “공여지 관련사업 지원 등을 중앙정부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경기도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지방비 매칭과 지방세 감면 조례개정등을 선도적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영민기자



19일 오전 경기도청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남북교류협력 방향에 대한 구상 등 의견을 나누고 있다.

/김수연기자 foto.92@

경기도, '3帶·3路' 중심 평화경제 실현한다

'평화의 시대' 정책 토론회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실현되고 있는 한반도 해빙 분위기 속에서 '경기도는 3개 축으로 중심으로 3개 길을 열어야 한다'는 비전이 제시됐다.

1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위원회' 이한주 공동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남북평화협력시대의 중심, 경기도'라는 미래비전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 평화경제 3대(帶)·3로(路)'

경의축·경원축·DMZ 동서축 통일경제 거점 등 구상 제시

서해안 중심 남·북·중 연결 '환황해 해양로드' 구축 제안

라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현 정부의 '한반도 신 경제구상'에 맞춰 3대(경의축 지대, 경원축 지대, DMZ 동서축 지대)와 3로(경의선 로드,

경원선 로드, 환황해 해양로드)를 중심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대의 중심지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신성장 거점 ▲통일 한반도 사동팔달의 교통 인프라 ▲살고 싶은 생태 복지의 경기북부 등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경의축을 한반도 통일 경제의 거점으로, 경원축을 한반도 관광·물류·농업 거점으로, DMZ 동서축을 한반도 평화생명벨트로 각각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국과 연결되는 경의선, 러시아로 이어지는 경원선을 중심으로 우리의 경

제영토를 유라시아로 확장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경기 서해안을 중심으로 남·북·중을 연결하는 환황해 해양로드를 열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 동북아 성장 시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방향도 제안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향후 추진할 중점 과제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체계 정비·확대, 경의·경원축 통일경제특구 추진, 미군공여지 국가 주도개발, DMZ생태평화지대 구축, 환황해 경제벨트 개발 등을 설정했다.

앞서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평화변영시대의 전망'을 주제로 한 기조 발제를 통해 "앞으로 '과정으로서 비핵화'가 이뤄질 경우, 단계적 대북재제 해제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며 "도를 포함한 지자체들의 대북협력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특히 도의 통일경제특구 추진에도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조 발제 이후에는 발제자와 제안자, 참석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화영 연정(평화)부지사는 총평을 통해 "그간 남북교류 행정은 비밀주의가 강했던 것이 사실이다. 새 시대의 남북교류 행정은 오픈된 플랫폼을 통해 전문가, 민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도가 앞장서 이를 위한 바탕을 마련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최준석기자 jschoi@

道 북방정책 '3帶 3路' 비전 나왔다

새경기위 북부서 정책토론회
경의선·경원선·DMZ축 개발
유라시아 철도연결 계획 제안

민선 7기 경기도의 북방정책은 '3대(帶)3로(路)'로 펼쳐질 전망이다.

경의선축·경원선축·DMZ동서축으로 구성된 3개 지대를 통해 통일 한반도 경제 중심지의 초석을 쌓고, 경의선 로드·경원선 로드·환황해 해양로드를 통해 유라시아로 향하는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19일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경기위원회'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비전을 밝혔다.

'3대3로' 정책의 4대 전략목표는 ▶한반도 신경제 지대의 중심지 ▶한반도 경제 공동체의 신성장 거점 ▶통일 한반도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 ▶살고 싶은 생태 복지의 경기북부다.

인수위는 4대 전략목표와 3개 지대

별 전략사업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기도의 북방정책을 경기도에 제안했다.

지대별 전략사업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경의축 지대는 남북 경의선 연결, 통일경제특구 조성, 한강하구 남북공동 활용 및 명소 조성 등이 있다.

경원축 지대 전략사업에는 마찬가지로 남북 경원선 연결과 통일경제특구 조성, GTX-C 연결 및 순환철도망 구축과 물류기지 조성 등이 담겼다.

군사분계선을 따로 동서로 길게 이어지는 DMZ동서축 지대에는 DMZ·트진강 평화생명벨트 조성과 임진강 수계 공동관리 등 생태·관광 사업 중심으로 구성됐다.

3로(路)는 경의선과 경원선 복원을 통한 중국횡단철도(TCR·Trans China Railroad), 시베리아횡단철도(TSR·Trans Siberian Railroad) 연결을 비롯해 평택항을 기점으로 해주를 거쳐 산동반도로 향하는 바닷길인 환황해 해양로드를 잇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3로 정책을 통해 그간 남

북단절로 막혀있던 유라시아 대륙 진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0년 5·24 조치 이후 대부분 중단된 남북교류협력 사업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운영됐던 유소년축구대회의 재개에 이어 개성 수확여행과 개성~파주 마라톤 대회 등의 신규 개최, 개성한옥보존사업과 농촌현대화사업 등도 재개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도내 산재한 반환 미군 공여지의 국가주도개발을 위한 '미군 공여구역 개발청' 설립 건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도 서해축을 중심으로 남·북·중 경제협력 지대를 건설하는 환황해 경제벨트 구상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환황해 경제벨트는 환황해 해양로드와 맞물려 평택~해주, 남포~산동성 연계 항로 개설을 통해 평택항을 중심으로 경기 서해안 지역을 환황해 중심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황영민·서희수기자

평화협력 이끌 ‘경기북부발전’ 정책 논하다

경의·경원·DMZ동서 3대 축
경의·경원·환황해 해양로드
전략적 개발 방안 등 토론회

경기도가 경의·경원·DMZ동서 3대 축과 경의·경원·환황해 해양로드로 이어지는 3개 길을 전략적으로 개발하는 경기북부발전 ‘3대3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 2층에서 ‘한반도 평화협력시대-경기가 할 일은?’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한주 새로운경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남북 평화 협력시대의 기틀 마련을 위해 경의·경원·DMZ동서 3대 축과 경의·경원·환황해 해양로드로 이어지는 3개 길을 전략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경의축은 남북 경의선 연결을 통해 고양과 파주의 출판 및 문화콘텐츠를 결합하는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GTX-A 연결 및 경의중앙선 연장,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조기 준공, 개성수학여행·개성-과주 마라톤 대회 등 남북교류 협력 계획을 제시했다.

동두천·양주·연천을 잇는 경원축은 GTX-C 연결·순환철도망 구축 및 물류기지 조성, 친환경 디자인 융합클러스터 구축, 대북 농업교류 전초기지 조성, 남북 연결 도로 및 고속도로망 확충 계획과 함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조성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DMZ 동서축은 임진강수계 공동관



‘한반도 평화협력시대’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 흥연의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등 제언자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리를 통해 생태관광벨트를 조성하고, DMZ에서 세계생태평화축제·평화포럼 개최 등의 계획을 담았다.

정책 실현을 위한 중점 과제로 남북 교류협력 사업체계 정비와 경의·경원축 통일경제특구 추진, DMZ 생태평화지대 구축, 환황해 경제벨트 개발, 미군공여지 국가 주도개발과 관련한 경기도의 선도적 역할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새로운경기위원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세종연구소, 대전대 DMZ연

구소,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김진홍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 대북 평화 정책 전문가 및 도민 등 300여명의 참석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모았다.

기조발제자로 참석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단계적인 경제제재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국가경제 5개년 전략 및 경제 올인 노선 채택으로 미국보다

급한 입장”이라면서도 “비핵화를 둘러싼 미국 내 여론 변수로 인해 미국이 더 조급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토론회 총평을 통해 “그간 남북교류 행정은 비밀주의가 강했던 것이 사실이다. 새 시대의 남북교류 행정은 오픈된 플랫폼을 통해 전문가, 민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가 앞장서 이를 위한 바탕을 마련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강상준·김홍민 기자 wallace@incheonilbo.com